

금빛에 기대어 읽는 가을 시편들

흐린 사양빛으로 여름이 이우고
창문을 열면 눈 앞에서 가을이다.
살아남는 것만으로 축복이 되는 시간.
매미소리가 진 자리에 귀뚜라미 소리
겹쳐지고 가을도 아주 한복판이면
시를 읽는다. 지난 여름동안 발간된
시집들 중에서 가을을 소재로 한
시 몇 편을 소개한다.

슬픈 꿈

최하림

어느 해보다도 빠른 가을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맺히고 빛난다
아침 빛살에 어둠 문은 새들이
지친 평화런 듯 흘러가고
어느 도시의 새벽길들
청소부들이 혁명처럼 무자비하게
쓸어헤치면서 간다 휴지들이
날아간다 여자도 남자도 휴지처럼
날아가고 밤새 술타령을 하고
골목을 돌고 돌아 비렁뱅이 같은
시인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가을 대문 앞에 선다
지쳐서 도착한 나라 아이슬란드어
빙산의 섬들이여 찬 빛 아래
향아리는 깨어지고
향아리는 비고
향아리는 보이지 않는다
별도 보이지
않는다.

— 《겨울 깊은 물소리》, 문학동네

아름다움이어

-페테르부르크 시편 5

정현중

안 벽에는 꽃과 나뭇잎의 릴리프
창밖에는 눈부신 가을 나뭇잎
자연과 예술의 和鳴이어
마음은 춤춘다 아름다움이어
— 《갈즈이며 샘물인》, 문학과지성사

영산포 배 속에서

한용운

어선의 피리 소린 강, 달하고 하나 되고,
양쪽 언덕 가을은 술 마시는 등불에 들어,
외뿔배엔 하늘도 물만 갈아서
갈꽃 딸아 흐르고 또 흘러가네
— 《만해 한용운 한시선》, 민음사.

추억 저편의 묘지

박주택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됐다.
개들은 저녁에 자신의 시간 속에 노랗게 핀
버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달의 긴 불구의 다리가
나무 위에 늘어져 있을 때

길에 버려진 낙엽들은
천 개의 눈을 떠 창을 더듬고 꽃들은 꽃들대로
제 어두운 그림자에 싸여 운명을 갇아먹는다

이것이 추억이란 말인가
좀벌레가 슬어 사랑도 힘이 되지 못할 때
연못에는 고인 눈물처럼 별이 지나간다

영종도에서 을왕리 가는 길

여자는 폐허 같은 풍경을 보고도 예쁘다 하고
맞지 않는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이를 딱딱거리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나온 길이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설 때
나는 폐가 같은 여자의 노랫소리에
차창 문을 연다

그저 그렇고 그런 밤바다

열에 들뜬 몇 명만이 백사장을 걷고
기껏 망둥어만 잡아 올리는 낚시를 바라본다
내 오랜 침묵을 힘없이 기웃거리던 그녀를
깜깜한 바닷속으로 밀어버리고
나는 소나무 아래에서
노랗게 핀 추억의 버즘을 곱어대고 있다

모든 추억은 무덤을 가지고 있다

— 《사막의 별 아래에서》, 세계사

은행나무

이재금

뜨르르 바람 불고
찬 비 내려
낮 곱게 씻은 아침
아득하게 무너져 내리는 잎사귀
아쉬움 하나 없다

한 해가 모이면
저리도 사무치는 아름다움 되는가
슬픔이 쌓이면
크나큰 사랑 되는가

저 고요 고요 고요
고요 속에 머무는 평화
가진 것 버리는 아늑함이어
낮은 데로 흐르는 하늘이어
— 《나는 어디 있는가》, 실천문학

새로 나온 시집

갈즈이며 샘물인
정현중/문학과지성사/110면/5000원
겨울 깊은 물소리
최하림/문학동네/110면/5000원
그로테스크
최승호/민음사/92면/5500원
그리고 여섯 해 지나 만나다
오도엽/실천문학사/116면/5000원
그리운 꽃편지
김용택/문학동네/152면/5000원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곽재구/열림원/120면/5500원
나나 이야기
정한용/민음사/100면/5500원
나는 어디 있는가
이재금/실천문학사/134면/5000원

나비를 보는 고통
박찬일/문학과지성사/108면/5000원
당신의 마당
김종길 외/문학동네/126면/5500원
뜯어먹기 좋은 빵
노혜경/세계사/200면/5000원
만해 한용운 한시선
한용운·서정주/민음사/174면/6000원
모서리의 사랑
조윤희/세계사/192면/5000원
버드나무 꺾질에 세 들고 싶다
이정록/문학과지성사/112면/5000원
사막의 별 아래에서
박주택/세계사/128면/5000원
스·타·카·토 내 영혼
김정란/중앙M&B/170면/7000원

시인의 바깥에서
김연신/문학과지성사/108면/5000원
어떤 청혼
정기복/실천문학사/128면/5000원
웃는 산
안정목/세계사/120면/5000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백주은/민음사/116면/5500원
청춘
김태동/문학과지성사/162면/5000원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오규원/문학과지성사/96면/5000원
회중시계
김지현/고려원/102면/4500원